

남원 지리산허브밸리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한국관광공사 지원 받아 컨설팅·홍보·마케팅 전개 인기관광지 성장 가능성

남원 지리산허브밸리가 잠재형 관광지로 선정되면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에 따르면 운봉읍에 위치한 지리산허브밸리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유망 관광지를 찾아 육성하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현재는 방문객이 많지 않지만 컨설팅과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전개를 통해 인기관광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유·무로 관광지를 말한다.

해발 500여m의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지리산허브밸리는 지난 2005년 정부로부터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로 지정받아 허브테마관광지로 조성해 왔다.

자생식물환경공원과 허브테마파크, 허브제품가공단지, 허브를 오감으로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허브 사이언스파크, 허브 원료를 사용해 나만의 화장품을 만드는 열린 연구실 등 허브와 함께 하는 힐링장소



남원시 운봉읍에 위치한 지리산허브밸리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의 알려지지 않은 유망 관광지를 찾아 육성하는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리산허브밸리 전경. <남원시 제공>

로 알려져 있다. 지리산허브밸리가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됨에 따라 ▲강소형 관광지 구축을 위한 컨설팅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역특화상품 개발 및 운영 ▲팸투

어, 관광캠페인, 관광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관광공사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리산허브밸리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 받게 되면 남녀노소 연령을 초월해 재미와

힐링을 안겨주는 새로운 관광지로 전국에 알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함평나비축제 올 입장객 31만명 넘어서

작년보다 4만명 늘어 '티켓파워' 입증... 입장료 수입 9억여원

함평나비축제가 입장객 31만명을 넘어서며 '티켓파워'를 입증했다.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개막한 제21회 함평나비축제가 6일 폐막한 가운데 입장객은 지난해보다 4만여 명 늘어난 31만666명으로 집계됐다.

입장료 수입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국민 무료입장 영향으로 지난 2017년 9억 8200만원에는 못 미쳤지만, 지난해보다 1억5000여 만원 늘어난 9억55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9억원의 축제 개최비용을 상회하는 입장료 수입을 달성해 전국의 몇 안 되는 축제에 이름을 올렸다.

농특산물 판매장을 비롯한 축제장 내 각종 판매장 수입도 짝꿍했다.

군민이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지

난해보다 1억5000여 만원 늘어난 4억 255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각종 판매장 매출과 부스 임대료 수입 등을 합하면 축제장 내에서만 10억1100 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려 8년 연속 10 억원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윤형 함평군수는 "올해 나비축제가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린 자원봉사자와 500여 공적자, 군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성과보다는 올해 부족했던 부분에 더욱 집중하며 내년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나비축제의 여운이 남아있는 함평엑스포공원을 이달 말까지 축제 때보다 저렴한 입장료로 유료 운영한다.

군민이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지

/함평=황은학 기자 hwang@



강진군, 논 잡초 제거 '무인 에어보트' 보급 추진

농촌 지역의 골칫거리인 논 잡초를 농업 무인 에어보트로 없앤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올해 '농업용 무인에어보트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사진>

영농 초·중기 제조제 살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동력 절감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약제와 함께 탑재 시 무게가 35kg에 육박, 직접 눈에 들어가 제조제를 살포할

경우 1ha당 1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농업용 무인에어보트를 사용하면 무선송신기로 조정이 가능해 눈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제조제 살포 등 방제가 가능하다.

5분에 1ha에 제조제 살포가 가능하며 하루 동안 혼자서 26ha까지 작업할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익산시,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 민·관·군 비상대응체계 구축 완료

사업장 현장점검 활동 강화

익산시가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민·관·군, 전국건설기계협회 익산협의회 등과 상호 협조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시는 유관기관과 재난자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해우려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장마대비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단계별 비상근무에 필요한 농업·축산·도로 등 19개 분야에 총 8개 반, 199명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재해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또 풍수해 대비 현장 점검계획을 수립해 공사 중인 사업장을 상시 관리하고 침수 우려지역 관로상태를 점검해 침수·침하 피해의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각 분야별 자체계획을 수립해 체육·관광·공연장 시설 등의 사업장 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하수도 주요관로에 대해 CCTV를 통한 조사를 펼쳐 침수우려지역인 영등동 약촌오거리 등 16개 곳 32km의 하수관로에 대한 기계준설 사업을 추진한다.

또 농경지 침수 우려지역인 요교 1간선의 31개 노선에 대한 수로준설 공사를 장마 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경지 부근 마포배수지전과 함열전 주변 배수로 정비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연중 추진한다.

시는 이미 비상급수와 쓰레기 처리대책, 매립장 전기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도 정비했다.

시는 또 우기 전 공사완료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된 사방사업(식물 피복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익산지역 재해취약지구 점검대상은 급경사지 12곳, 세월교 4곳, 배수펌프장 12곳, 산사태 취약지역 31곳, 5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장 2곳 등 총 61곳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고창 특산품 '성내 스테비아 수박' 출하

고창군의 지역 특산품인 '성내 스테비아 수박'이 출하됐다.<사진>

성내 스테비아 수박은 지난 7일 첫 출하를 시작으로 오는 6월말까지 본격 출하된다.

올해 고창수박 출하는 지난해 대비 20일 정도 앞당겨 졌다.

고창 성내 스테비아 수박은 국화과 다년생 허브식물인 스테비아를 액비로 활용해 당도를 높였고, 식이섬유 등이 다량 함유된 가능성 수박으로 자리매김했다.

스테비아 수박의 당도는 13브릭스(Brix)로 설탕의 200배지만, 칼로리는 설탕

의 1%에 그쳐 인기를 끌고 있다. 수박 출하와 함께 오는 15일에는 성내면 작은수박(블랙랑고), 25일 이후에는 무장면-공음면에서 재배되고 있는 애플수박도 시장에 출하될 전망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고창군에서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되는 고창 수박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고창군에서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되는 고창 수박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고창군에서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되는 고창 수박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전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고창군에서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생산되는 고창 수박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시립미술관, 14일부터 '소소한 희노애락' 전

특별기획전시 '100년의 기다림-한국 근현대명화'전을 통해 전국구 미술관으로 떠오른 정읍시립미술관 '소소한 희노애락'전을 14일부터 연다.

이번 전시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로 구성해 관객의 참여로 진행되는 기획전이다. 우리의 다양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객 참여형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 은행 소장품 40여 점과 국내 현대 작가 작품 20여 점이 전시된다.

1전시실에서는 1인칭 시점으로 희노애락을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 3전시실과 중정의 공간에서는 '날으는 코끼리' 작품을 체험할 수도 있다. 정읍시립미술관 전시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063-539-6418)로 문의하면 된다.

전시된다.

1전시실에서는 1인칭 시점으로 희노애락을 표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또 3전시실과 중정의 공간에서는 '날으는 코끼리' 작품을 체험할 수도 있다.

정읍시립미술관 전시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월요일은 휴관한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063-539-6418)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
-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매매 - 1억 4000만원 (일시불 조정가)

남구 덕남동 임야, 투자

- 3.3㎡당 25만원,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